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노동의 인문학과 정치시민을 위한 논의*

유범상(한국방송통신대)

현재 유행하는 인문학은 개인의 힐링과 교양 및 자기계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 복지,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인문학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국가권력 및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을 제안한다. 노동의 인문학은 개인보다는 구조에, 힐링보다는 비판에, 순응과 적응보다는 저항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권력, 자본주의, 현실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의식화의 인문학이다. 노동의 인문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비판의 무기이고 계급의식화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교육의 교재로서 정치시민을 형성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노동의 인문학이 지역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조직화를 위한 실천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인문학, 노동의 인문학, 정치시민, 계급, 독서동아리 민주주의

* 이 논문은 2013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은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던 ‘인문학 3.0시대를 위한 인문학대중화 사업 재설계방안 연구’(한국연구재단, 2014)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본 논문에 대한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1. 위기에서 호황으로, 왜 노동은 없는가

90년대 중반 인문학의 위기론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2006년 전국 80개 인문대학장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다. 폐강된 교양강의 대부분은 인문·사회계열이고 폐과된 대부분의 학과도 인문학이 다수를 차지한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인문학 살리기운동’을 시작했다. 정부는 매년 400억을 투자하는 인문한국(HK)사업을 시작했고, 인문학 대중화사업 등을 통해 인문학 부흥을 위해 나섰다. 이후 불과 5년이 지나지 않아 인문학은 전성기에 접어 든 듯이 보였다. 이제 한국사회에서 인문학 강좌와 프로그램이 도처에 존재한다. 대학은 물론이고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TV, 라디오 등에서 인문학 강좌가 범람하고 있다. 심지어 마을만들기, 참여예산제, 의제 21 등 인문학과 무관해 보이는 영역에서조차 인문학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인문도시’라는 말도 흔한 용어가 되었다. 가히 인문학의 르네상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문학이 만나는 대상도 다양해졌다. 노숙자, 재소자, 한부모가족, 기업의 CEO, 주부, 장애인, 자원봉사자, 여성 등을 만나기 위해 인문학은 오늘도 활발히 다니고 있다. 인문학 분야와 담론도 풍부해졌다. 인문학 관련 대중서가 다양한 이름을 달고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인문경영¹⁾, 소통의 인문학²⁾, 도시인문학³⁾, 생활속 인

1) 예를 들어 『인문에서 경영의 지혜를 배우다』(상루, 황보경 역, 2013, 평단문화사),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정진홍, 2007, 21세기 북스), 『인문경영으로 리드하라』(신동기, 2011, 엘도라도) 등의 책과 인문경영연구소 등이 있다.

2) 예를 들어 『소통의 인문학』(박구용 외, 2010, 전남대학교출판부), 『행복한 인문학』(임철우 등, 2008, 이매진), 『소통기계와 네트워크 인문학』(임정택 외, 2011, 연세대학교출판부), 『인문학소통과 공생의 지혜』(인하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10, 글로벌콘텐츠) 등이 있다.

3) 『글로벌 폴리스의 양가성과 도시인문학의 모색』(서울 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등, 2010, 메이데이), 도시인문학연구(메이데이 발행저널) 등과 서울시립대학교 도시

문학⁴⁾, 아이폰 인문학⁵⁾, 어린이를 위한 인문학, 인문치료, 광고 인문학, 연애 인문학, 팬티 인문학 등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화려한 수사와 함께 전사회적인 현상이 되었다. 모든 길은 인문학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오늘은 인문학의 열풍지대로 변하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인문학의 무풍지대가 존재한다. 그곳은 대학과 노동운동 영역이다. 대졸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과 대학생은 인문학을 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인문학의 본성이 비판이고 그 대상이 자본주의, 권력, 진리, 상식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노동영역에서도 인문학이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아직까지 노동조합이 본격적으로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홈페이지에 인문학에 대한 언급을 거의 발견할 수가 없다. 노동조합의 교육에 인문학이 고려되고 있다는 흔적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왜 인문학의 열풍 속에서도 노동의 영역에서는 인문학이 무풍지대로 존재할까? 그 원인은 무엇인가? CEO 인문학처럼 노동의 인문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것이 본 논문의 연구물음이다.

2. 연구방법: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

본 연구는 현재 한국의 인문학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현행 정부

인문학연구소 등이 있다.

- 4) 『길위의 인문학』(구효서 등, 2011, 경향미디어)을 참조하라.
- 5) 기업 주도의 인문학은 ‘아이폰 인문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최근 들어 기업들은 경영, 기술개발, 신입사원 공채 등 여러 부문에서 인문학과 공학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여기에는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영향이 크다. 잡스는 신제품 아이패드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기술과 교양과정, 인문학의 교차로에 애플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이폰 인문학의 핵심은 잡스가 추구하고 실현했던 융복합이다(경향신문, 2013. 8. 19).

의 인문학 정책과 문헌조사를 실시했고, 인문학 단체와 관련학자, 그리고 노동조합 교육관계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과 분석을 진행했다. 문헌의 경우 정부의 인문학대중화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또한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학대중화 정책 및 지원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간 사업보고서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특히, 인문도시, 시민강좌, 인문주간, 석학인문강좌 등에 대한 연구보고서, 도서, 신문, 잡지 등 다양한 문헌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했다.

또한 본 논문은 심층면접을 활용해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면접을 위한 질적 조사는 대상자들을 그들의 영역에서 관찰하고 그들의 언어와 관점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인터뷰는 토론의 과정에서 풍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질문지보다 반구조화된 질문에 기반하여 이루어졌다. 반구조화된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인터뷰 참여자의 인식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Morgan, 2007: 55). 따라서 본 연구의 인문학대중화 사업에 관련해 논점을 규정하고 반응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질문목록을 만들었다. 인터뷰는 가벼운 질문에서 시작하여 심층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었고, 인터뷰 도중 궁금한 것이나 의문이 있으면 이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 1〉 인터뷰 대상

대상	소속	인터뷰 장소	일시
A	인문학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02.04
B	인문학자	가장자리	2014.03.20
C	인문학자	푸른역사아카데미	2014.02.06
D	성프란시스대학 관계자	성프란시스대학	2014.03.20
E	인문학협동조합 관계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02.12
F	수유너머 N 관계자	수유너머 N	2014.03.10
G	광주 인문도시 관계자	전남대학교	2014.04.08
H	한국노총 교육담당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5.01.27
I	민주노총 교육담당자	카페봄봄	2014.12.08

심층면접 대상자는 인문학 대중화와 관련된 학자, 단체, 인문도시의 연구책임자를 인터뷰하였다. 또한 노동운동활동가들 중에 노동교육에 관련된 활동가들을 조사하였다. 심층면접 대상자는 총 9명이었다. 인터뷰 장소와 시간은 인터뷰 참가자가 선택하도록 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1회당 1-2시간 이루어졌다. 인터뷰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녹음했으며, 녹취록을 전사하였다.

3. 연구관점: 인문학과 정치

인문학은 근본적으로 사회현상 속에서 나를 묻고 그 속에서 나의 존재와 관계를 문제삼아 나를 찾는 과정이다. 즉 자신의 정체성을 관계 속에서 비판적으로 묻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문학은 정체성의 형성과 관련이 깊다. 이것은 인문학이 사회적 관계를 합리적 개인들 간의 관계인지, 적대적 계급관계인지, 또는 그 외에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연관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비판의 과정에

서 나를 둘러싼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어떤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게 하는 매개이자 전략일 수 있다. 즉 인문학은 어떤 관계에 대한 비판과 이해의 영역이고 이를 통해 어떤 특정한 인식에 도달하게 한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이해다. 정확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가를 피상적으로 원한이나 감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인문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궁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질문의 모험일 뿐이다(인터뷰 E, 2014. 2. 12).

비판과 이해의 인문학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특정 관계를 보편타당하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것은 인문학의 중립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하워드 진은 기차위에 올라탄 사람이 중립적일 수 없다고 말한다. 즉 그 기차가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그 위에 타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 방향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기차 위에서 중립적인체 객관을 가장하는 것은 위선이다’고 비판한다(Zinn, 2002). 최근에 한국을 방문한 교황이 세월호를 상징하는 노란리본을 달고 있었다. 교황은, “어떤 사람이 내게 와서 ‘중립을 지켜야 하니 (노란리본을) 떼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인간적 고통 앞에서 중립을 지킬 수는 없다’고 답했습니다”라고 언급했다(TV 조선, 2014. 8. 19). 그런데 노란 리본을 달지 않으면 중립적인 것

6) 에드워드 톰슨은 계급을 인간관계속에서 발생하는 역사적 현상으로 간주했다. 그는 계급을 “(때로 제도로 표출되는) 사회적·문화적 구성물”로 보았다(Thompson, 1978: 245). 문화적 구성물이 의미하는 바는 계급이라는 것이 사물이 아니라 어떤 관계인데 그 관계를 계급이라는 특정한 구성물로 인식해서 계급이 되었다는 것이다. 즉 계급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으로 호명함으로써 계급이 되는 것이다.

일까? 세월호에 대해 누군가가 비판하지 말고 애도와 슬픔만을 표현 하라고 한다면 그는 중립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 또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편파적인 태도인 것이다. 이처럼 중립은 신화에 불과하고 현실은 중립을 가장한 하나의 전략에 불과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문학이 이해의 학문이라고 했을 때, “지배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지배체제와 본의 아니게 공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Pincon, 2012). 이처럼 인간의 일에 관여하는 인문학은 중립적일 수 없다.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어떤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된다. 이처럼 인문학은 누구에게 유리하고 누구에게 불리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삶과 관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인문학은 하나가 아니라 둘 아니 그 이상일 수도 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우리’의 전통과 ‘인문학’을 ‘위대한 작품’과 쉽게 동일화하지 말자. ‘다른’ 전통들, 그러므로 ‘다른’ 인문학도 존재한다”고 말한다(Said, 2012: 21). 두 개 아니 그 이상의 인문학은 누군가에 의해 취사선택되어 마치 교양도서인 것처럼 포장지를 두르고 사람들의 책상위에 올려진다. 중립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중립이라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항상 함께 작동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인문학의 이면에는 특정 의도와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 권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인문학은 지배와 피 지배의 관계, 계급갈등, 상이한 이해관계 등에서 중립적일 수 없는 것이다. 상이한 인문학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라고 언급했는데, 이때 투쟁의 핵심적인 영역은 이데올로기이고 헤게모니이다. 지배의 헤게모니는 항상 보편적·자연적·합리적인 존재로 지배계급을 표현한다. 이

런 맥락에서 마르크스는 지배적인 사상은 지배계급의 사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혁명을 통해 권력관계가 변형된다면 과거의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는 이제 새로운 사상에 보편적인 자리를 내 주고 특수한 것이 된다고 보았다(Marx and Engels, 2007). 그람시는 이 생각을 헤게모니라는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헤게모니는 특정 계급이 자신의 특수 이익을 보편적인 이익으로 믿게 함으로써 다른 계급을 자신들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드는 정치적·지적·도덕적 리더십이다(Gramsci, 2006). 이렇게 볼 때, 중세는 자신들의 지배와 착취를 신의 질서라는 의식형성을 통해 정당화했다. 신은 진리자였고 정치는 신의 뜻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근대가 되면 국가이성이 신의 자리를 대체한다. 베버에 따르면 국가이성은 관료제와 합법적 폭력으로 장착된 국가를 정당화한다. 국가이성은 국민을 호명하고 사회를 조직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생각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이런 생각의 조직된·체계화된 형태가 이념이고, 철학이고, 이데올로기이다. 따라서 생각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폭력을 수반한 당파적인 것일 수 있다. 남의 진리를 허위로 부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진리로 긍정하려는 한에 있어서 생각은 항상 당파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중립적인 것으로 치장한다. 주목해야 할 점은 상식 또한 그렇다는 점이다. 우리는 상식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이해한다. 그런데 상식이라는 썸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철학 및 이념이라는 저수지에서 나온다. 지식, 역사, 상식 등은 권력관계의 산물이다. 이들 이면에는 어떤 권력, 즉 국가이든 자본이든지 그것의 의지와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과 상식은 교양이 아니라 지배의 무기이고 정치의 아레나이고 실천의 바로미터이다.

결론적으로 인문학은 나의 존재를 묻고, 규정하고, 어떤 의도의 동의를 구하는 데 관여한다. 이를 통해 특정한 상식과 의식형성 그리고

권력관계에 기여한다. 따라서 인문학 자체는 중립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문학은 중립적일 수 없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국 땅에서 인문학의 열풍과 무풍의 현상을 목도하면서 이 인문학의 정체성과 진리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생겨난다.

4. 인문학 열풍과 노동의 무관심

인문학의 이런 열풍은 어떻게 불기 시작했을까? 누가 인문학의 호황을 이끄는가? 그리고 이 인문학의 수혜자는 누구일까? 호황을 이끈 발화점이자 주체는 정부, 거리의 인문학자들, 그리고 기업이다.

정부는 인문학의 위기에 직면해 ‘인문학 부흥’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펼쳤다. 현재 교육부는 인문학진흥 방안의 일환으로 인문사회기초연구를 위해 막대한 재원을 지원하고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문학대중화를 위해서 인문강좌, 인문축제, 포럼, 인문도시선정과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교육부와 경쟁적으로 인문학을 지원해 왔는데, 독서활동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도서관과 박물관과 연계하여 인문체험활동을 활성화하는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양정모, 2013: 2-3; 문화체육관광부, 2013).

박근혜 정부도 인문학을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민행복’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인문학을 창조경제의 견인차와 국민행복의 전도사로 간주하면서 2014년 인문학 예산을 15% 정도 증액했다. 또한 ‘문화융성위원회’를 대통령 정책자문기구로 신설하고, 그 안에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이 특위의 주요 미션은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재조명, 인문정신문화의 대중화, 한국문화의 국내외 확산이다(김기봉, 2013. 11. 29). 이런 맥락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서울시의

‘희망의 인문학’, 강남구청의 ‘수요인문학 강좌’, 송파구청의 ‘대하소설로 배우는 인문학강좌’, 영등포구청의 ‘동네인문학’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 노력의 저편에서 또 다른 인문학 움직임이 지속되어 왔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직전부터 일부의 인문학자들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있었다. 2005년 성프란시스 대학의 ‘노숙인을 위한 인문학 강좌’와 2007년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수용자를 위한 인문학 강좌’ 등이 개설되었다. 이후 제도 밖의 단체인 연구공간 수유+너머, 철학아카데미, 푸른역사아카데미, 대안연구공동체, 다중지성의 정원, 데모스, 파이데이아, 디지털문화예술아카데미, 인문학 협동조합, 시민교육과 사회정책을 위한 마중물 등이 인문학을 실천하고 있다(오창은, 2013; 시사IN, 2013. 12. 10). 이들은 ‘반(半)제도비평가’(오창은, 2013), ‘거리의 인문학’(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불온한 인문학’(최진석 외, 2011), ‘싸우는 인문학’(강양구 외, 2013), ‘실천인문학’(고영직, 2010)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자신을 호명한다.

흥미로운 것은 인문학의 열풍이 기업과 기업인들에게 세차게 불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인들은 스티브 잡스가 ‘인문학 감화’라는 발언을 한 이후 인문학 배우기에 열심이다. 동아일보는 다음과 같이 열풍의 진원지를 보도하고 있다. “2005년 즈음, 인문학 열풍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바람은 두 곳으로부터 불어왔다. 하나는 대학 강단 인문학과 대별되는 대안 인문 공간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경영계였다”(동아일보, 2011. 3. 14.). 특히 기업들은 인문학을 입사요건에 넣고 있다: “올해 신입사원 10-15%가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다. 신입사원 교육 과정도 인문학 중심으로 바뀌었다. 그 전까지는 인문학도를 거의 뽑지 않았다”(현대건설 홍보실 박원철 과장). 실제로 2010년 현대건설 관리·사무파트 신입사원 30명 중 15명, 2011년 43명 중 13명이 순수 인문계열

전공자다. 그런데 원래는 경제·경영·법학과 출신이 100%였다. 현대건설은 올해에도 신입사원 10-15%를 인문·사회계열에서 뽑았다”(동아일보, 2011. 3. 14). 현재 대기업은 인문학에 대한 투자를 늘려 소위 ‘아이폰 인문학’을 확산시키고 있다. 인문학 위기가 이제 극복된 것처럼 보인다(경향신문, 2013. 8. 18). 이처럼 이윤추구가 목표인 자본의 영역에서 인문학이 나타나서 열풍으로 변한 것은 의외일 수 있다. 이것은 자본이 인문학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노동의 영역에서는 인문학 교육이 모색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왜 노동은 인문학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노동운동이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노동운동은 현안에 매여 교육을 할 수가 없다(인터뷰 I, 2014. 12. 8). 즉 그동안 노동조합은 상반기에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을 위한 투쟁을 하고 하반기에는 노동법개정을 주요 활동으로 전개해 왔다.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운동은 정리해고와 노동시장유연화가 광범위하게 나타나서 고용문제에 활동의 대부분을 집중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가하게 인문학을 공부할 여유가 없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중에서 단체협약을 통해 교육시간을 쟁취하고 있는 노조는 20%를 겨우 넘고, 그나마 교육을 보장받고 있는 노조의 절반 가량이 10시간 미만이다. 조합원들은 회사나 교회의 교육, 또는 예비군 훈련이나 민방위 교육은 받지만 노조의 교육은 받지 못한다(이재영,

7) 한편 노동운동가들뿐만 아니라 노동자들도 인문학을 공부할 여유가 없다: “일반 시민도 주권자로 자기 역할을 하려면 공부도 좀 해야 하고, 공부해야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원자력부터 이것저것 많으니까, 근데 거기에 관한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주민등록증 하나 만들어주면 시민으로 자기역할 알아서 하라는 건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방식이고, 적절하게 교육도 해줘야 하고, 기회도 줘야 하고, 생계 걱정에서 좀 벗어나야 책도 좀 읽을 수가 있으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받쳐줘야 민주주의가 돌아가던가 하죠”(인터뷰 C, 2014. 2. 6).

다음으로 노동운동은 인문학을 ‘유한마담의 놀이’ 정도로 취급한다. 즉 대체적으로 인문학을 “책 한권 들고 품잡고 시쓰는 행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인터뷰 H, 2015. 1. 27). 따라서 인문학은 계급의식과 노동자 조직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산층의 품격과 품위의 장식물이라고 인식한다. 다음은 노사관계 업무에 종사했던 관계자의 언급이다:

주말에 집에서 쉬는 경우에도 해외여행 TV프로그램도 보고 명작 스캔들 같은 프로도 감상하면서 품격을 높인다. 인문학은 삶의 의미를 성찰할 수 있게 한다. 미술관·박물관을 다니고 문화유적을 답사하며 고전을 독서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알게 하고 품격을 높일 수 있다. 인문학은 노동을 해방시킨다. 재충전하면서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삶이 풍요롭게 된다. 또한 노동의 질도 높아진다. 인문 정신의 고양·회복은 바로 인간존중이다. 휴머니즘은 사람이 노동으로부터 자신을 발견하는 길이다 (김세근, 2012).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노동’으로 표현한 고된 일로부터 해방시켜 주거나 다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충전의 요소이다. 즉 노동을 둘러싼 세상을 이해하는 매개나 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진영이 인문학에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가끔 노동조합, 진보정당 등이 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알리곤 한다. 빠듯한 일정 속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의 뜻은 분명하다. ‘공장, 사무실에서 고된 노동을 한 이들이 퇴근 후 텔레비전 앞에서 멍하니 시간을 보내거나, 술집에서 시시덕거리는

것보다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문학이 사람을 바꾸는데 무력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걸까? 차라리 그 시간에 좀 더 실용적인 강의, 예를 들자면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교실' 혹은 '노동자를 위한 건강교실' 따위를 열어야 하지 않을까?(강양구, 2013: 218).

이러다 보니 노동조합의 인문학 강좌는 자본이나 중산층의 한가한 놀음으로 치부된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인문학 강좌를 거의 개설하지 않는다.

앞서 언급된 이유 때문에 인문학은 노동운동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

노동운동은 인문학을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것을 설파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인문학이 문제의 원인을 계급이나 구조가 아니라 개인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한다(인터뷰 I, 2014. 12. 8).

이렇기 때문에 강양구는 현재적 수준에서 인문학이 노동자의 진짜 무기가 될 수 없다고 본다(강양구, 2013). 이런 맥락에서 민중운동과 계급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은 인문학을 개량주의나 개인주의와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문학은 계급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문학이 노동자의 무기였던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없다면 도대체 노동자의 진짜 무기는 무엇일까? ... 노동운동의 몰락을 언급하는 지금 이 시점에,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문학, 역사, 철학 같은 인문학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로 묶어 줄 수 있는 소통의 경험이다. 유럽의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초기의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모여서 소통할 수 있는 ‘민중의 집’ 같은 공간을 만들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강양구, 2013: 219).

이처럼 노동운동은 현재의 인문학을 계급의식이나 조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본다.⁸⁾ 그런데 인문학이 계급의식과 계급갈등을 둘러싼 교화와 저항의 전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태도는 노동운동이 인문학을 방치하도록 만들고 있다.

5. 무관심의 이유: 노동없는 힐링과 자본의 인문학

이상에서 보듯이 노동은 인문학이 정부주도의 개인치유의 힐링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계몽, 교양, 치료, 위로와 위안을 목표로 하는 이 인문학에는 권력, 정치, 계급, 억압 등에 대한 비판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은 이 인문학이 오히려 권력과 자본을 옹호하고 정당화한다고 본다. 실제 현재의 한국사회에서 인문학은 그런 것인가?

이성훈(2012)은 현재 인문학을 ‘연구비 수주형 인문학과 관 주도 행사인문학’으로 규정짓는다. 그는 인문학이 관주도로 바뀌면서 인문학과 인문학자가 연구비 수주를 위해 인문학을 활용하면서 인문학은 자본과 권력에 길들여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인문대중화사업은 행사성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들 비판론자들은 한국연구재단 등의 계량적 성과 위주의 학문지원 시스템은 오히려 자본에 의한 학문 식민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본다. 비판은 다음과 같이 지속된다: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하는 인문도시와 인문강좌사업에 뽑힌 동양대는

8) 이 밖에도 노동조합 교육관련 면접자들은 노동조합이 인문학을 교육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는 것은 교육시간 확보의 어려움, 현 노조간부들의 공부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알만큼 다 안다는 노조간부들의 선민의식과 메너리즘 등을 꼽았다.

전통선비문화와 현대 인문학의 융합으로 영주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와 성장 동력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칠곡군도 지역 인문학을 미래 성장동력의 자원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문’을 내세운 도시 또는 마을 사업은 융복합 개념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함께 녹아있다. 내용을 뜯어보면 예전 생태도시(마을), 스토리텔링 마을,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같은 지역 특화 사업의 구조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이성훈, 2012).

강명관은 『침묵의 공장』에서 인문학을 공장에 비유한다. 공장은 어떤 이미지인가? 현대의 공장은 “거대하지만 기계음이 들리지 않는다. 조용하다. 먼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기는 청정하게 관리되고 노동자들은 제복 혹은 방진복을 입고 있다. 말도 필요없다. 모든 것은 자동화되어 있다. ‘노동쟁의’는 고어사전에서 찾아볼 단어가 되었다.” 이런 공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완벽한 침묵”이다(강명관, 2013: 11). 강명관은 국가, 자본, 테크놀로지의 지배의 트라이앵글이 지배한다고 보면서 인문학도 이와 같은 구조하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의 인문학이 권력과 자본에 ‘자발적 노예’로 전락했다는 점에 있다:

인문학은 이제 국가의 ‘관리’하에서만 살아날 수 있는 것이다. 자본의 부탁을 받은 국가는 관리기구를 작동시킨다. 교육부는 국가권력을 수단으로 교육과 대학에 강제하는 기관이고, 한국연구재단은 ‘지원’을 통해 학문을 관리, 통제하는 기관이다. 실로 부끄러울 정도의 적은 예산으로 인문학은 훌륭히 관리, 통제될 수 있다(강명관, 2013: 18-19).

이처럼 『침묵의 공장』은 인문학이 자발적으로 자본과 국가의 공모 관계에 들어 갔다고 비판한다. 그 결과 인문학은 자신의 비판과 성찰의 본성을 잃고 연구비 수주형의 인문학의 틀 속에 갇혀 있다. 이를 『불온한 인문학』의 저자들은 ‘인문학의 좀비화’로 표현한다. 인문학은

“국가와 자본의 월급쟁이가 되자마자 권력과 돈에 눈이 멀고 귀가 막히고 입이 봉해진 산송장”이 되었다는 것이다(최진석 외, 2011: 14):

현실에서 인문학 지원에 관해 요구할 수 있고 지원도 해줄 수 있지만,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하나 터치하면서 ‘어떠한 결과를 제출하라’는 식의 행정적인 사무 같은 것을 요구한다면 인문학이라 할 수도 클 수도 없죠. … 인문학은 시민들의 정신을 구축하는 건축이잖아요. 국가가 정형화된 시민들을 찍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더 이상 인문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인터뷰 F, 2014. 3. 10).

더 나아가 현행 인문학은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수행에도 동원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인문학은 자립과 자조를 강조하는 노동연계복지를 수행하고 있다. 즉 서울형 복지란 이름으로 고안된 신자유주의적 복지정책은 ‘희망의 인문학’이란 프로그램에 내재해 있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인문학이란 ‘기업가정신’을 통해 스스로 인생을 책임지고 살아가라는, 저 악명 높은 노동연계복지(workfare)의 복음이 스며 있다. 복지(welfare)라는 개념을 대체한 노동연계복지라는 번역하기 곤란한 신조어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의 정체를 잘 보여준다. 이는 사회현대 원리에 근거하여 위협에 대처하는 책임을 공유한다는 종래의 복지를 철두철미 개인화한다. 급여, 후생, 복지 같은 ‘사회적인’ 테크닉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창업, 교육, 훈련같이 기업가처럼 행동하는 개인을 제한 지원하는 신종 복지 테크닉이 들어선다. 인문학은 바로 그런 개인과 경제 활동을 매개하는 윤리로 자리 잡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서,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지 않고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며, 기업가적인 인물이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서동진, 2013: 25).

이처럼 인문학은 정부에 종속되거나 힐링에 몰입하면서 비판과 성

찰이라는 본래의 인문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윌터 카우프만은 모든 가치에 대해 비판하고 진리에 근접하려는 소크라테스의 에토스(정신)가 우리 시대 인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Kaufmann, 2011). 하지만 대학은 취업률과 입학률에 몰두하고, 거리로 나온 인문학은 인문치료의 인문사회복지 영역을 개척하고, 정부의 ‘인문정신문화’는 순응을 강제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힐링의 과잉과 왜소화된 비판이 오늘날 한국 인문학의 현주소인 것이다.

한편, 인문학은 자본의 인문학이라는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롭지 못하다. 한국에서 인문학은 자본주의와 불화를 일으키기보다 매우 친화적이다. 인문학은 스펙쌓기와 돈벌이에 유효한 매우 실용적인 존재이다. ‘부자되세요’처럼 인문학이 처세나 자기계발, 스펙, 돈벌이로 취급되고 있다. 이 근원은 한국의 자본이다:

자본은 인문학의 유용성을 묻는다. 그것은 인문학으로 돈을 벌 수 있는냐는 질문이다. 다른말로 하자면, 이윤을 낼 수 있는가하는 질문이며 좀더 거룩하게 말하자면 자본의 증식에 기여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다. 어떤가, 후자로 갈수록 뭔가 ‘학문적’으로 들리지 않는가(강명관, 2013: 36).

어디로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을까? 얼마 전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를 출시하면서 했던 연설에 있다. 그는 말했다: “우리가 아이패드를 만든 것은 애플이 항상 기술과 인문학(Liberal Arts)의 갈림길에서 고민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람들은 기술을 따라잡으려 애썼지만 사실은 반대로 기술이 사람을 찾아와야 합니다”(동아일보, 2010. 1. 30) 이처럼 인문학은 돈을 버는 혁신의 길잡이가 된다:

지금 스티브잡스 얘기만 하는데, 최근에 CEO들이, 어느 정도 조금 영

향력 있는 CEO들이 갑자기 관심을 갖게 되는 게, 100원짜리를 옛날에는 1,000원으로밖에 못 팔았는데 아니 10,000원으로 팔수 있어, 왜냐고? 인문학 때문이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100원을 투입해서 1,000원에 팔았던 것을 10,000원에 팔 수 있다고 하는, 환상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CEO인문학에서부터, 정치인들 인문학 또는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G, 2014. 4. 8).

사실 잡스의 인문학 사랑은 이전부터 많이 인용되었다. 검색창에 아이폰패드 또는 스티브잡스와 함께 인문학을 치면 “애플 따라 가려면 인문학을 해라.”, “입양아를 바로 키운 것은 인문학이다.”, “붓글씨(인문학)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매킨토시의 아름다운 폰트는 탄생하지 못했을 것이다” 등등 다양한 글이 검색된다. 결국 우리도 ‘잡스처럼’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다(문화, 2011: 40). 한국의 자본은 자본의 사도를 따라 인문학의 중요성을 인식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겼다:

“사람들 생각의 뿌리가 인문학이다. 뿌리를 알면 생각에 어떻게 어프로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디자인도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 (디자인 업체 CEO) “박연폭포를 보면서 샤워기를 저렇게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목욕탕용품 전문 업체 CEO) “백화점 고객은 상품을 사러 오면서 ‘사랑’, ‘풍요’, ‘자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요구한다. 이를 읽어내는 통찰력은 인문학이라는 자양분을 통해 길러진다.”(쇼핑 업체 대표)(문화, 2011: 40-41).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에서 현재 인문학은 ‘기업의 성장’을 위해, ‘경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더 나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인문학 소비의 가장 큰 목표인 것이다(문화, 2011: 43). 이런 맥락에서 인문학은 박근혜정부가 선호하는 사업이 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인문학적 바탕없이 창조경제자체가 불가

능하다”면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가 함께 갈 것을 주문했다(국민일보, 2013. 8. 7). 이렇게 스티브 잡스의 인문학은 한국의 정치와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헤리포터의 문학작품이 아니라 그 작품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비중있게 다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이제 자본전략이 되고 있다. 문강형준(한겨레신문, 2013. 8. 9)은 ‘인문학이라는 쓰레기’라는 칼럼에서 인문학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략했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CEO 인문학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CEO 인문학은 ‘업무 생산성을 좀 더 높이고 혁신적인 아이템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의 방식으로는 안돼,’ 지금의 방식이 아닌 것을 누구한테 아웃소싱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접근방법을 달리해볼까?’ 뭐 이런것들이죠. ... 그런데 그것은 인문학이 아닌거죠. 인문학에 투영된 자기 욕망인거죠(인터뷰 A, 2014. 2. 4).

이처럼 인문학은 자본의 애장품이 되어 왔다. 자본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이 인문학을 그럴듯한 포장지이자 노동과 자본 간의 관계를 왜곡하는 유효한 도구일 수 있다고 인식한다. 이를 통해 자본가는 이제 창의적인 예술가란 가면을 쓴 모험적인 사업가로 변신한다. 잡스는 애플의 혁신적인 제품은 전적으로 인문학적인 발상에 빚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가혹한 노동 조건을 견디다 못해 잇달아 자살을 택한 폭스콘 노동자들은 애플 제품을 이야기하는 데 언급되지 않는다. 상품이라는 사물은 전적으로 그것을 고안하고 디자인한 인물들의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서동진, 2013: 22-23). 이처럼 기업은 인간화된 모습으로 자신을 이미지화하는데 인문학적 방법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Shorris, 2006: 28). 이와 관련하여 고영직은 인문학을 이른바 ‘감정 자본주의’의 문화적 형식이라고

규정한다:

인문학이 치료의 기능을 하며, 삶의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을 위한 상상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소비’되고 있다. 대학 안과 밖을 막론하고 오늘날 인문학이 일종의 자본주의적 순치 프로그램으로 작동하면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에 적극 가담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영직, 2010: 163-164).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인문학은 상품생산의 도구이고 상품판매의 포장지이다. 또한 인문학은 세상살이의 처세술이다. 특히 그것은 자본에게 매우 실용적인 방식이다. 최근 인문학 분야의 인기도서 중 하나인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노골적으로 인문학의 실용성을 강조한다. 이 책의 부제는 ‘세상을 지배하는 0.1퍼센트의 인문고전 독서법’이다. 즉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인문학이 등장한다.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자본에게 딱 맞는 매우 품위있고 실용적인 옷이 된 것이다. 이처럼 인문학은 제품개발과 경쟁력을 위한 실용적인 상품이다.

한편 거리에 나온 인문학에게도 노동운동은 신뢰를 보낼 수 없는 듯이 보인다. 이 인문학도 개인의 교양이나 힐링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인문학은 논어·맹자나 스피노자니체 등의 고전 강독을 통해 시민교양의 수준을 높이거나 소외와 고독,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에 빠져 피로해진 현대인에게 쉼을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한다. 더 나아가 특정 취약한 개인들에 집중한다. 즉 인문학은 노숙자, 재소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 프로그램이다. 이것은 인문학대중화사업에서도 두드러진 현상이다. 인문학대중화사업에 선정된 시민인문강좌 사업에서 ‘취약지역 중학교 학생들의 돌봄과 치유를 위한 철학 강좌’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수 존재한다(송기동, 2012: 529). 이 맥락에서 대중화 사업의 성과를 다음과 같

은 인용으로 말하고 있다:

열심히 살았지만 기초수급자, 장애 6급, 유방암 수술 등 늘 실패한 삶을 살았던 한 여성이 ‘행복’해지고 싶어서 강좌를 신청했고, 동 강좌를 통해 삶의 희망을 얻었다는 진솔한 소감은 인문학이 우리의 삶에 왜 절실한지를 다시 한 번 깨닫게 해 준다(송기동, 2012: 529).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은 사회복지가 사회적 소외감 해소에 개입해야 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기초생활비 지원이나 단순노동 교육 등의 방법으로는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인문학이 나서야 한다고 본다.⁹⁾ 그러면서 ‘서울시, 희망의 인문학’ 같은 사례를 깊이 있게 연구해 한층 발전된 형태로 시정에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시킨다면 투입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권한다(전봉주, 2011: 28-29).

그렇다면 한국에서 인문학 열풍의 계기를 만든 얼 쇼리스의 『희망의 인문학』은 어떤가? 『희망의 인문학』은 정치참여를 가르치고 그 방법으로 인문학 교육을 강조한다. 이런 그의 입장으로 인해 희망의 인문학이 힐링을 넘어선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과연 그럴까? 테니스 코트 사례를 보면 얼 쇼리스 인문학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테니스 코트의 사례가】 미국 사회에 존재하는 부자와 빈민의 중요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아이들은 정치적이지 않다. 그들은 질서

9) 노숙인 인문학의 경우도 인문학을 통해 참여자들이 표정이 밝아지면서 자존감을 회복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문제를 자기안으로 끌어 들인다: 공부하면서 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면, 조금 문제가 되겠죠. 제 생각에는 일단 학문은 겸손과 성찰로부터 시작하므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참회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글쓰기도 항상 과거에는 남탓을 했는데, 그 남탓이 사회구조적인 것을 못하고, 구체적인 개인에 대한 미움은 굉장히 많지요. 그 남 탓하는 것으로부터 자신의 탓으로 가면서 해소가 되는 겁니다(인터뷰 D, 2014. 3. 20).

와 자유 사이의 중도를 발견할 수 없다. 대신 그들은 꼬집어낼 수만 있다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무력이라도 행사하려고 했다. 테니스 배우기에 쓸 수 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무력의 무질서 속에서 잃어 버렸다. 가난한 아이들은 테니스 코트에 자신들의 상황을 비추어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에 무관심한 자신들의 행동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식할 수 없다. 그들은 정치적 규칙보다는 무력의 법칙에 따라 반응한다. 무력이야말로 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Shorris, 2006: 61).

이상에서 보듯이 얼 쇼리스의 정치적 삶과 정치참여는 현행 질서와 정치참여 방법을 잘 익히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손기태는 『희망의 인문학』을 소외계층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한다. 즉 얼 쇼리스는 체제비판과 새로운 상상의 불온한 인문학보다는 지배자의 입장에서 손해 볼 것이 없는 순응과 질저유지에 더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손기태, 2011). 그런데, 이 규칙과 질서를 그대로 놔두고 피지배층은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얼 쇼리스의 희망은 체제에 적응할 때 찾아 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운동이 보기에 이 인문학은 권력비판이나 계급의식향상이 아닌 순응과 복종의 절망의 인문학은 아닐까?

6. 노동의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 의식화와 시민교육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정부주도의 연구비수주와 행사인문학, 기업주도의 창조경제 인문학, 거리의 교양과 힐링의 인문학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인문학은 ‘지친 나’, ‘경쟁력을 키워 적응하는 나’, ‘교양과 소양의 나’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구조, 계급, 자본주의, 권력 등의 문제를 보지 못하거나 모순을 은폐할 우려가 있다. 이런 인문학이 노동운동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노동은 현행 인문학을 넘어서

서 새로운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왜 노동이 인문학을 해야 할까? 우선 인문학의 열풍현상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도서관, 박물관 사회복지관, 자원봉사센터, 백화점, 대학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인문학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이 개인힐링과 경쟁력을 갖춘 경제적 동물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라면 노동은 이 인문학의 역할과 효과를 직시해야한다.¹⁰⁾ 이 인문학이 지속되고 성공하면 할수록 노동운동의 성장과 계급의식에 기초한 노동자의 조직화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노동은 자본의 인문학, 통치의 인문학, 힐링의 인문학에 대항해서 노동의 인문학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노동이 인문학을 해야 하는 이유는 인문학이 시민들의 삶과 유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만난 한 인문학자는 “인문학이 인문학자의 인문학이 아니라 구체적 민중의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인터뷰 B. 2014. 3. 11). 즉 인문학은 구체적인 삶을 비판하고 성찰하여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구조와 관계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의 인문학은 대항헤게모니와 시민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 한 조사에서 중학교 아이들에게 노동자 이미지를 물었다. 그때 거지, 못배운 자들, 일개미, 장애인, 돈버는 기계, 강철인간, 중국인, 동남아 등의 대답이 나왔다(경향신문. 2013. 10. 14). 이런 상황에서 노동의 인문학은 조합원 교육을 위해 노동조합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민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스웨덴의 경우 30만개의 독서동아리들은 성인들이 일상적으로 토론하는 공간이다. 사회민주당은 이 독서동아리의 토론으로 인해 장기집권을 할 수 있었다. 왜

10) 노동은 인문학을 계급이 아니라 개인이며, 개인의 교양과 스펙을 위한 장식물로 보고 있다. 이런 인문학은 한국사회의 갈등과 모순에 중립적일 수가 없다.

냐하면 스웨덴 노총(LO) 산하 노동교육원(ABF)이 100만명 규모의 시민과 조합원을 교육에 간여하고 있고 이것은 시민당의 지지기반이 되었기 때문이다(Lasson and Nordvall, 2010). 한국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는 의식화를 통해 조직된 시민 즉 시민사회에서 대항해게모니를 구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동의 인문학은 인문학이 힐링의 방법이고 개인과 연관되고 실용적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싸워야 한다. 다시 말해 인문학이 민중의 삶을 반영하고, 권력과 자본주의의 비판이며 노동자 계급의식과 의식화를 통한 조직화의 중요한 지렛대라는 것을 노동운동 내부에서 자각해야 한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있는 인문학을 개인치료와 자본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해서 인문학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런 인문학에 대한 냉소적 태도는 인문학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인문학이 융성한 시기에 우리는 정작 가장 역겨운 형태의 역설을 대면한다. 이는 우리를 새롭게 주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해버린다. 인문학이라는 이데올로기로부터 인문학을 구제한다는 것은 난센스다. ... 인문학이란 물신이야말로 사유를 중단시키는 미끼이기 때문이다(서동진, 2013: 26).

따라서 현재 한국의 노동운동은 아이를 씻긴 목욕물이 더럽다고 그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리듯이 힐링, 교양, 자본의 인문학을 버리면서 문화투쟁과 계급의식 형성에 유용한 인문학 자체를 버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인문학을 노동자와 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는 헤게모니의 숙주로 보아야 한다:

인문학은 비판력을 가지고, 인간에 대한 탐색이고, 사회에 대한 인식,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 대해서 공부시키고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민주주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를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인터뷰 B, 2014. 3. 11).

이상에서 보듯이 오늘날 헤게모니는 인문학 즉 문화, 예술, 철학 등을 통해 행사된다. 따라서 노동의 인문학은 일하는 사람들과 노동운동을 위한 인문학의 영토를 만들어야 한다. 인문학은 교양과 성찰로써 개인의 힐링 뿐만 아니라 자본주의와 권력관계를 문제삼아 비판하는 영역일 수 있다. 비판과 성찰을 자기본분으로 하는 인문학은 때론 저항의 철학적 무기가 되기도 하고 대항헤게모니의 진지가 되기도 하며, 세력화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인문학을 방치하여 권력과 자본의 포로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필링의 인문학¹¹⁾, 불온한 인문학, 실천 인문학처럼 기본적으로 일체의 권력을 문제삼아 변화를 꿈꾸는 자신의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을 정립해야 한다.

7. 노동의 인문학 정립과 정치시민을 위하여

본 논문은 인문학이 ‘지친 나’에 대한 위로, 더 많은 자본을 위한 아이디어 बैं크, 보다 고급스런 교양습득 등을 넘어서서 나를 지치게 한 숨겨진 압제를 문제 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인문학은 삶의 터전인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상상과 실천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인문학은 일하는 사

11) 『필링의 인문학』은 ‘지친 나’를 위로하는 인문학에서 ‘나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찾는 인문학을 추구한다. 즉 인디언이 말을 질주하다 내려서 뒤를 돌아보면서 ‘지친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에서 내려 내 말에 씌워진 눈가리개를 벗겨 버리면 ‘나를 지치게 만든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이 책은 ‘눈가리개를 벗겨 버리는 것’을 힐링(healing)에 대비해 필링(peeling)으로 표현한다(유범상 2014).

람들을 위한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이다. 노동의 인문학은 자본과 권력이 거세되어 현재의 상식을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힐링의 인문학, 자본의 인문학, 자기계발의 인문학, 통치의 인문학¹²⁾과 대립해야 한다. 노동의 인문학은 현재의 힐링과 상품계발, 자기계발로 이해되는 인문학을 넘어서서 비판과 계급형성 그리고 자본주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무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노동의 인문학을 어떻게 정립할 수 있을까? 에드워드 사이드는 인문학이 ‘우리’가 이미 알고 느끼는 것을 다시 확인해 공고히 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품화되어 무비판적으로 코드화된 확실한 것에 대해 질문하고 소란을 일으켜 재정식화하는 것이라고 말한다(Said, 2012: 50). 즉 노동의 인문학은 현실비판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인문주의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말은 그것을 민주적인 것으로, 모든 계급과 환경에 열려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뜻이며, 또한 끊임없는 상기와 발견, 자기비판, 해방의 과정으로서 이해한다는 뜻이다. 인문학이 곧 비판이며, 이 비판이란 대학 안과 밖의 사건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다(Said, 2012: 42).

비판은 계급, 정치, 구조, 자본주의가 거세된 힐링 과잉의 인문학을 향해야 한다. 이것은 인문학에서 왜소화된 자본주의와 권력관계 그리고 계급과 계급의식을 불러내어 새롭게 인문학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노동의 인문학은 항상 그 시대의 진리, 상식, 헤게모니

12) 통치의 인문학은 관에서 민에게 베풀 듯이 주는 인문학을 의미한다. “통치의 인문학처럼 구청장이 베풀어 주는 것인데, ‘이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하잖아’, ‘이런 정도는 생각해야 되잖아’라고 이야기하면서 순환시키는 인문학이 거의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거죠”(인터뷰 A, 2014. 2. 4); “교육부는 문화를 매개로 해서 창조경제와 어떻게 접목을 지을 것인지 관심이려면 저는 그 쪽은 관심이 애당초 없습니다. 인문학을 경쟁력으로 바라보는 것은 기존체제를 어떻게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뷰 B, 2014. 3. 11).

를 문제삼는 불온한 것이 되어야 한다. 즉 노동의 인문학은 자본의 인문학에 대립되는 것으로써 노동계급의 헤게모니전략이고 노동계급의 이익을 보편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정치적 행위를 해야 한다. 따라서 이것은 현재 만연한 힐링의 인문학과 그 신화를 비판하는 인문학이다. 즉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서 찾고 대안을 힐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계급과 자본주의에서 찾고 비판을 통해 새로운 상상을 하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인문학은 재정립되어야 한다. 인문학은 의식의 조직화를 위한 부드러운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의 인문학은 노동자의 의식화와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만날 수 있는 매개자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동의 인문학은 보다 적극적으로 인문학이 노동교육과 대항헤게모니 형성의 재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교육과 성인교육을 매개로 해서 노동운동은 지역과 도처에서 소통해야 한다. 현재 지역에서 다양한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다. 도서관, 박물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자활센터 등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 노동의 인문학이 개입해서 자본의 인문학과 대결해야 한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간 즉 성프란시스 대학(노숙인),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자활주민), 관악인문대학(자활주민), 늘 푸른 인문대학(자활주민), 노원 성프란시스 대학(노원 9단지) 등에서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과 시민단체와 만나야 한다(고영직, 2010):

기존에는 대규모 공장에서 일하므로 공장이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였는데 산업구조자체의 변화로 인해 불안정노동이 강화되고 있고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인해 장소개념으로 볼 때에도 이들이 한 공간에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장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지역이어야 합니다. 지역에서 모여지지 않는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자들을 어떻게 자기인식을 하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저항과 비판의 힘을 길러내는 것이 핵심이겠죠. 잘 아시겠지만 스웨덴이나 지금도 남아있는 민중의 집과

같은 기획이 한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인터뷰 B, 2014. 3. 11).

이상에서 보듯이 인문학을 매개로 노동의 인문학은 지역에 거점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임이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서유럽 노동조합은 시민사회와 소통을 하는데 책동아리를 활성화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조합원보다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은 노동의 인문학의 모임을 만들어 왔다. 그리고 자본과 살츠바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자들의 학습권을 보장했다(SFS, 1974). 한편 독일은 정치권이 보이텔스바흐협약을 통해 세가지 원칙에 합의함으로써 히틀러의 그림자를 지우고자 했다. 이 협약은 주입식교육을 절대하지 말 것, 쟁점을 드러내어 토론하도록 할 것, 그리고 시민들이 각자의 정치적 견해를 갖도록 할 것 등을 담았고, 이것은 비판적인 시민성 형성에 기여했다(BpB, 2014). 이 모든 것은 정치시민의 형성으로 귀결되었고 그 결과 민주주의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문학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그것은 정부 주도의 인문학은 차치하고서라도 거리의 인문학도 노동자편이라고 할 수 없다. 그 원인은 노동운동이 인문학을 자기편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스스로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이것은 노동운동이 노동의 인문학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로 인해 인문학을 대항해계모니 전략으로 보지 않는 것에 상당부분 기인한다. 그 사이에 인문학은 자본과 권력의 전유물이 되었다. 이제라도 노동운동은 개인과 자본의 인문학을 노동의 인문학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과 힐링의 인문학에 저항하는 다양한 흐름들과 만나 정치시민과 성인교육의 노동의 인문학을 만들어 가야 한다.

(2015년 4월 5일 접수, 4월 22일 심사완료, 4월 23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강명관. 2013. 『침묵의 공장』. 서울: 천년의상상.
- 강신주·지승호. 2013. 『강신주의 맨얼굴의 철학 당당한 인문학』. 서울: 시대의창.
- 강양구 외. 2013. 『싸우는 인문학』. 반비.
- 고영직. 2010. “운동으로서의 실천인문학을 위하여”. 『문화과학』. 2010년 63(가을호). 162-171.
- 김기봉. 2013. “인문학과 문화융성”, ‘인문총’ 창립1주년 토론회(2013. 11. 29).
- 김세곤. 2012. “인문학은 노동을 해방시킵니다”. 『월간 노동법률』 2012년 4월호.
- 김준환. 2012. “국화처럼 향기롭게”. 『월간노동법률』. 2012년 4월호.
- 문화. 2011. “우리 시대 인문학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가”. 『불온한 인문학』. 최진석 외 중. 파주: 휴머니스트. 21-54.
- 문화체육관광부. 2013. 「독서문화진흥기본계획(2014-2018)」.
- 서동진. 2013.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적 CEO인가”. 『싸우는 인문학』강양구 외 중. 서울: 반비. 17-26.
- 성프란시스대학 인문학 과정. 2012. 『거리의 인문학』. 서울: 삼인.
- 손기태. 2011. “인문학은 위험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가”. 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 서울: 휴머니스트.
- 송기동. 2012. “한국의 인문학 정책과 사회적 기여”. 제2회 세계인문학포럼 발표 자료집.
- 신승환. 2010. 『지금, 여기의 인문학』. 서울: 휴머니스트.
- 안상현. 2012. 『인문학 공부법』. 서울: 북포스.
- 양정모. 2013. 『‘문화융성, 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과 인문도시』.
- 오창은. 2013. 『절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 유범상. 2014. 『필링의 인문학: 인문학 정치의 옷을 입다』. 서울: 논형출판사.
- 이성훈. 2012. “인문학과 그 위기, 그리고 문화연구”. 『오늘의 문예비평』. 2012년 봄호.
- 이재영. 2013. 『비판으로 세상을 사랑하다』. 서울: 해피스토리

- 임승수. 2014. “찰리 채플린, 모던 타임즈”. <http://blog.daum.net/bomessal/15422968>
(검색일: 2015. 3. 15)
- 장석주. 2012. 『일상의 인문학』. 서울: 민음사.
- 전봉주. 2011. “부산 인문학 르네상스-부산 소외층의 자활과 인문학의 실천”. 『부산발전포럼』 129. 26-33.
- 최진석 외. 2011. 『불온한 인문학』. 서울: 후마니타스.
- 한국연구재단. 2013. 『인문학분야 지식사업화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트리플 헬릭스(Triple Helix) 관점에서』.
- 한국연구재단. 2014. 『인문학 3.0시대를 위한 인문학대중화사업 재설계방안 연구』.
- BpB(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14 검색. <http://www.bpb.de>.
- Gramsi, A. 이상훈 역. 2006. 『그람시의 옥중수고 1』. 거름.
- Kaufmann, W. 이은정 역. 2011. 『인문학의 미래』. 파주: 동녘.
- Larsson, S. & Nordvall, H. 2010. *Study Circles in Sweden: An Overview with a Bibliography of International Literature*. Linköping: Linköping University Electronic Press.
- Marx, K.. 김수행 역. 2004. 『자본론 I (상)』. 서울: 비봉출판사.
- Marx, K·Engels, F. 박재희 역. 2007. 『독일 이데올로기』. 파주: 청년사.
- Morgan, D. L.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역. 2007. 『질적연구로서의 포커스 그룹』. 대한질적연구간호학회.
- Pincon, M. 장행훈 역. 2012. 『부자들의 대통령』. 프리뷰.
- Said. E. W. 김정하 역. 2012. 『저항의 인문학: 인문주의와 민주적 비판』. 서울: 마티.
- SFS. 1974. <http://www.government.se/sb/d/3288/nocache/true/a/19565/dictionary/true>.
- Shorris, E. 고병헌 외 역. 2006. 『희망의 인문학』. 서울: 이매진.
- Thompson, E. P. "The Peculiarities of the English." *The Poverty of Theory and Other Essays*. New York: Monthly Review Pr.
- Zinn, H. 유강은 역. 2002. 『달리는 기차위에 증립은 없다』. 서울: 이후.

Whose Side Is Humanities on?
Finding Way for the Humanities of Labour

Bum-Sang Yoo

The origin of humanities is ontologically critic and reflection. Therefore humanities takes the fate of critic of capitalism and class relations. In contrast, the humanities in South Korea has been practically used as a tool for of accumulation of capital and healing of an individual. In this situation, the thesis is to explore why there is the hot wind of humanities in businesses and streets a deep silence unlike in the area of labor movement in terms of anti-hegemony.

As a result, the existing humanities is characterized as a surplus of healing and a short of criticism. Therefore labor movement must understand humanities as anti-hegemony strategy. For this purpose, this paper suggests the humanities of labor based on critic of capitalism, power relations, class against the humanities of capital and healing focusing on an individual. It puts the politics and class in humanities and makes solidarity with civic groups beyond healing and capital.

key words: humanities, humanities of labor, humanities of capital, labor movement, hegemony

